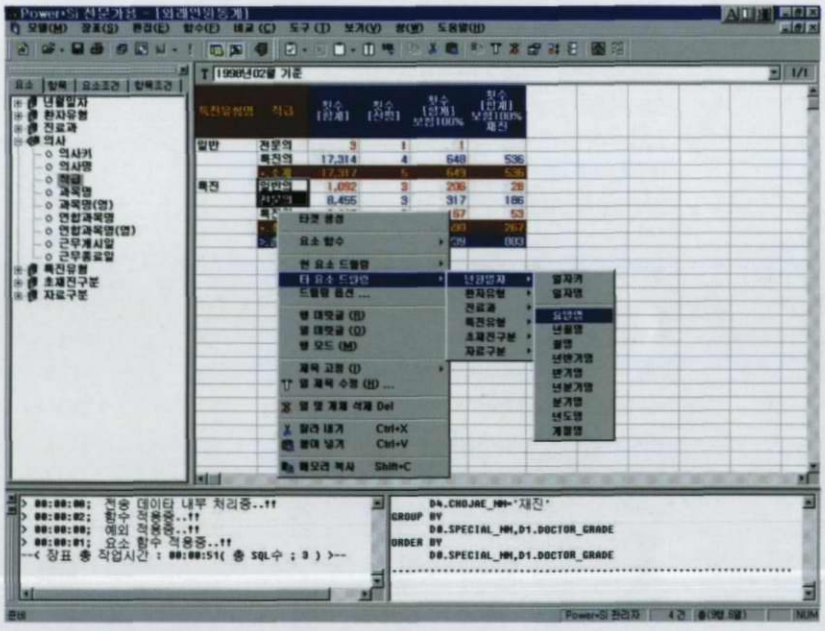
국산 OLAP 제품 '파워*씨'로 DW시장 공략

*외국산 제품 일색이던 OLAP 시장에 '파워*씨'라는 국산 제품이 출시되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주위의 힘들다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외국으로의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모던정보공학을 찾아가 '파워*씨'의 개발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글/박민식 기자〉*

모던정보공학은 94년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을 주사업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문업체로 이미지 변신한 벤처기업이다. 한종인 사장을 중심으로 12명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패키지 개발, DB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 분야로 삼고 있다.

모던정보공학은 94년 창업 당시에는 동원산업, 현대전자 등의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을, 95년에는 '97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데이터 모델링 및 튜닝을, 96년에는 제일제당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및 한국오라클 ERP 패키지 컨버전 작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던정보공학이 작은 규모로 업계의 주목을 받게된데는 한종인 사장의 역할이 컸다. 대학에서 정보관리학을 전공한 한 사장은 정보시스템 개발 업체에서 DBA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튜닝, 관리 등의 일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DB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이다.



〈그림〉 파워*씨 실행화면

한 사장이 OLAP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우연한 계기가 있었다. 한 사장은 OLAP제품 개발에 대해 "처음부터 OLAP을 개발하려는 구상도 없었다. 솔직히 당시에는 OLAP이라는 명칭과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95년 대기업의 마케팅 및 채권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 시스템을 조금더 정규화하고 보강하면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으리라는 구상 중에 이것이 OLAP제품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개발 동기를 밝혔다.

한 사장이 먼저 시작한 것은 OLAP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OLAP에 대한 자료 수집이었다. OLAP에 대한 정의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동안 인터넷과의 전쟁을 통해 OLAP의 개념 파악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들어가 96년 말 1차 개발을 마무리했고, 97년에 관리자용 파워*씨와 전문가용 파워*씨를 개발, 발표하였다.

한 사장은 "국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은 10여개의 외국 제품으로 국산 제품이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모던정보공학의 '파워*씨'는 쉬운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시간으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처리속도 및 비교기능 탁월

파워*씨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여 다차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담당자나 최고경영자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품이다.

파워*씨는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스프레드 시트나 프로젝트 문서자료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엑세스가 가능하고, 사용자 질의에 동일하게 응답할 수 있는 복수개의 오브젝트들 중 가장 짧은 응답 시간을 발휘해 검색하는 진보적인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분석장표에서 기존의 조건변동이 없는 사실(fact) 테이블에는 재질의하지 않으므로 DW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를 현저히 감소시켜 준다.

이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질의에 응답할 수 없을 경우에만 서버에 연결이 발생하므로, 더 많은 동시 상용자 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제품에 비해 증감치, 점유율 등 비교기능이 강력하다.

한사장은 "최근 데모시스템이 공급된 사이트에서 몇몇 외국 제품과의 성능비교 결과 2~5배 이상의 빠른 속도가 나타나는 등 여러 기능에서 제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IMF로 어려움을 겪기도

모던정보공학은 97년 제품 출시와 더불어 OLAP세미나를 하는 등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여러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었으나, IMF로 잇단 계약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금융권 도산과 합병으로 금융권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 통신, 유통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쳐왔던 모던정보공학에게는 어려움이 더했다.

또한 이런 경제적 환경의 어려움과 더불어 "우리 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제품 성능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계약 단계에서 이같은 경우를 자주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워*씨는 출시와 더불어 지금까지 통신업체, 은행, 보험사, 유통업체 등에 데모시스템을 공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병원과 계약 성사 단계에 있다.

한사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으로 확실한 레퍼런스 사이트가 구축되면 파워*씨의 시장 입지가 확실해 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끊임없는 개발과 도전

모던정보공학은 데이터 마이닝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여러 기능을 파워*씨에 추가하고 있다. 이는 모던정보공학이 단지 OLAP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을 포함한 전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외국 OLAP제품에 대비하기 위해 파워*씨 웹 버전을 개발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정식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던정보공학은 제품 개발 및 DW컨설팅에 참여할 인력을 연말까지 충원해 전체인원을 2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은 10여개의 외국 제품으로 국산 제품이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모던 정보공학의 '파워*씨'는 쉬운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시간으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제품" 이라고 소개했다.*